

금요일 오후에 한 여집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분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두 딸을 데리고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아픔을 얘기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녹여내셨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더니 등기관리증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수 년전에 사놓은 상가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7천에서 1억정도할 것이라고 하시며, 지금 2천 5백에 월 50만원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그 세도 교회로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교회 앞으로 등기를 하십시오. 그 상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인데, 그 중에서 2천 5백을 받아 방을 얻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 2천 5백만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도 함께 내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서원기도"에 눌러 지냈음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가는 절대 손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바쁜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후에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사시면서도 그 짐을 벗지 못해 수 많은 세월을 갈등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강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야기도 후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여집사님을 당회실로 오시게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전 재산을 교회는 받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우리는 이 몇 천만원을 쌓아두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도 결정 했습니다. 이것을 집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순간 집사님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분명 집사님의 전 재산을 받았습니.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그 상가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상가는 어제의 상가가 아닙니다. 어제의 상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감지 못한채 집사님이 차지하고 있던 상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이 상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가 이 상가를 집사님에게 드리면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집사님 가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집사님의 생활비가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팔아서 아이들 결혼 시키는데도 쓰셔야 합니다"

관리부장님께서 권리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담은 교회 봉투를 그 여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모인 당회원 모두는 박수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집사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집사님을 내가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모든 분들이 '아멘'했습니다.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차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품에 안은채로 말입니다.

이 결정을 하고 돌아간 분들 모두가 행복한 밤을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성도들 모두도 행복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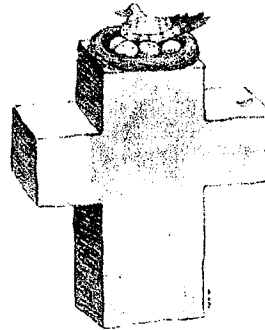
(이글을 올리면서 받은 김목사의 소경 한마디...)

"행복한 교회란 교회보다는 교우가 부자되는 것을 더 행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할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2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6월 2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매일 죽어야 산다

"새들에게 보금자리"



"우리에게는 복음자리"

젊고 유능한 유대인 외과 의사 빅틀 프랭클은 나치스에 의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가스실로 행진하는 동족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동족들은 언제나 죽음을 기다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란 걸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

그러나 젊은 외과 의사는 노동 시간에 깨진 유리병 조각을 자기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기고 돌아온 날부터 그는 혼자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구세주가 오시리란 걸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만 성급할 뿐이다"고.

그는 날마다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병자와 허약자는 가스실로 보내지던 때, 면도한 수염자리는 푸른색을 띠어 병자로 보이지 않게 하였고 그런 의지로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나가서 "의미요법(Logotherapy)"이라는 심리치료를 창조해 내었습니다.

그의 동족들은 죽음 앞에 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지만 그는 날마다 면도를 하면서 삶의 의지를 키웠고 동료들이 죽어갈 때마다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결국 그는 살아서 아우슈비츠를 떠나던 날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가스실로 떠난 동족들은 한 번 죽은 것으로 족했다. 그러나 난 살아 남기 위해서 매일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엄마가 딸에게

멋진 화장술을 아니?

좋은 화장품

좋은 식품

좋은 성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부를 수 있는 건전한 노래 한국곡은

준비해두어라

너 때문에 분위기가 깨져서는 안된다

분위기 깨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금이 가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9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4(시 46)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5 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동숙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9:10-17(신 106)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말씀도 듣고 떡도 먹고"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순례자의 노래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교역자 가족, 2절:다같이)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 일 안 내	Tea Time
2일	김동숙	사카시다	권용일, 이지영	전병주, 정덕수
9일	김순자	신경화	박일영, 김종건	권용일, 김성국
16일	김영길	신영화	박정자, 정희자	최재학, 김교섭
23일	김종건	양경배	박상옥, 이금선	김영길, 김종건
30일	노은숙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박상옥, 박일영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	-------------------	---------------

◀ 교 회 소 식 ▶

- *어느덧 6월, 월드컵의 달이고 어른들께서는 6,25가, 30-40대는 6,25상기 웅변대회가 기억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달에도 가정과 사업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에 고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1. 교우소식
 - *한국 방문후 귀국: 장현중 장로, 윤주야 집사.
 - *한국방문: 윤형권 집사(3일), 최재학, 노은숙 집사(3일). 계획된 일 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감기 몸살로 고생하셨습니다: 사카시다, 최기향 집사. 건강위해 기도드립니다
 - *이사: 윤형권, 신영화 집사. 내집 마련하여 이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사"
 - ☎ 838-4677 ☐ 30 Cron Ave. Te Atatu South
- 2.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성찬식을 행합니다
- 3. 이번주(매월 첫주 금요일)는 구역예배주간: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들에게 구역예배 안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피택 향존직분자 교육과 기도회: 화요일 저녁 7:30
- 5. 정기당회: 월요일 저녁 7:30
- 6. Donation 기다립니다
 - 1) 아동부 달란트 잔치를 위한 문구류
 - 2) 초등부실용 전기히터-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히터가 있으시면 봉헌 바랍니다
- 7. 주차안내: 교회 옆 U-BIX 주차장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8. 6월 교회력

일자	교 회 력	모 임
2일		당회(3일) 향존직교육(4) 구역예배(7)
9일	성찬식 식사친교주일	약속의 아비 기도회(10)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1)
30일	"이삭줍기"봉헌	여전도회 월례회(30) School Term Break(28)

신세대와 구세대 구별법

- 1) ()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똥☆)
'똥'으로 읽으면 구세대. '별똥별'로 읽으면 신세대
- 2) 다음의 단어 알면 신세대 모르면 구세대
'어쵸요' '울 쌤님' '쌤 방가' '넵 추카'
(어서오세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9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4(시 46)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5 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동숙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9:10-17(신 106)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말씀도 듣고 떡도 먹고"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순례자의 노래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교역자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 일 안 내	Tea Time
2일	김동숙	사카시다	권용일, 이지영	전병주, 정덕수
9일	김순자	신경화	박일영, 김종건	권용일, 김성국
16일	김영길	신영화	박정자, 정희자	최재학, 김교섭
23일	김종건	양경배	박상옥, 이금선	김영길, 김종건
30일	노은숙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박상옥, 박일영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	-------------------	---------------

◀ 교 회 소 식 ▶

- *어느덧 6월, 월드컵의 달이고 어른들께서는 6,25가, 30-40대는 6,25상기 웅변대회가 기억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달에도 가정과 사업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에 고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1. 교우소식
 - *한국 방문후 귀국: 장현중 장로, 윤주야 집사.
 - *한국방문: 윤형권 집사(3일), 최재학, 노은숙 집사(3일). 계획된 일 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감기 몸살로 고생하셨습니다: 사카시다, 최기향 집사. 건강위해 기도드립니다
 - *이사: 윤형권, 신영화 집사. 내집 마련하여 이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사"
 - ☎ 838-4677 ☒ 30 Cron Ave. Te Atatu South
- 2.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성찬식을 행합니다
- 3. 이번주(매월 첫주 금요일)는 구역예배주간: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들에게 구역예배 안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피택 향존직분자 교육과 기도회: 화요일 저녁 7:30
- 5. 정기당회: 월요일 저녁 7:30
- 6. Donation 기다립니다
 - 1) 아동부 달란트 잔치를 위한 문구류
 - 2) 초등부실용 전기히터-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히터가 있으시면 봉헌 바랍니다
- 7. 주차안내: 교회 옆 U-BIX 주차장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8. 6월 교회력

일자	교 회 력	모 임
2일		당회(3일) 향존직교육(4) 구역예배(7)
9일	성찬식 식사친교주일	약속의 아비 기도회(10)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1)
30일	"이삭줍기"봉헌	여전도회 월례회(30) School Term Break(28)

신세대와 구세대 구별법

- 1) ()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똥☆)
'똥'으로 읽으면 구세대. '별똥별'로 읽으면 신세대
- 2) 다음의 단어 알면 신세대 모르면 구세대
'어쵸요' '울 쌤님' '쌤 방가' '넵 추카'
(어서오세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해요)